

## 동아시아 “포스트 몽골시대”의 서막을 열 것인가?

---- 동아시아사의 관건적 시기에 관한 논의(1368-1420)

중국·복단대학(復旦大學)·갈조광(葛兆光)

### 【초론】

14 세기에서 15 세기로 이행하는 동안(1368-1420 년), 유라시아 대륙을 뒤덮었던 몽골제국의 세력은 동아시아에서 점차 쇠퇴해져갔다. 이는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 재구성에 있어서 관건적인 시기인 바, 이 시기를 이룸하여 “포스트 몽골시대”라 함이 어떨까 하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는 타협, 충돌, 재균형의 과정을 거치다가 마침내는 “기해동정(己亥東征)/응영외구(應永外寇)” 사건 이후 대체적인 안정을 이룩하게 된다. 조선의 “사대교린(事大交隣)”을 중심으로 상호 조정하는 동아시아 새 질서가 바로 그것이다. 여태껏 많은 역사학자들은 “몽골시대”를 세계사의 발단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몽골시대” 이후, 세계사의 일부분으로서 동아시아사의 기본특징은 무엇인가? 필자의 소견으로 봤을 때 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학의 화두이다.

—

역사의 일부 “관건적 시기”에 대한 논의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치가 있다.

중국역사를 보더라도 적지 않은 “관건적 시기”가 존재하는 바 이를 경계로 앞뒤 두 시대는 전혀 다른 두 모습의 역사적 풍경을 연출한다. 예를 들어 “당송교체 시기”가 그것인데, 일본 학자 나이토 고난(内藤湖南)이 “당송변혁” 가설을 제기함으로써 하여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눈길을 755 년(안사의 난)에서 1005 년(전연지맹)에 이르는 두 세기 반 남짓한 시기에 돌리게 되었으며 중고 중국으로부터 근세 중국으로의 거대한 변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앞다투어 연구를 진행하였다<sup>1</sup>. 또 예를 들자

<sup>1</sup> 内藤湖南 <概括の唐宋時代觀>, 일문판, 《歴史と地理》9卷5号(1922.5), p.1-11 참조; 영문판, 宮川尚志: *An Outline of the Naito Hypothesis and its Effects on Japanese Studies of China*, Far Eastern Quarterly, Vol.14, No.4 (1955), p.533-552 참조; 중문판, <概括的唐宋时代观>, 黄约瑟译, 载刘俊文主编《日本学者研究中国史论著选译》(北京, 中华书局, 1992) 第1卷《通论》 참조.

면, 중국 학자 장호(張灝)는 중국 근대사상사에 있어서 1895년부터 1925년까지를 “관건적 시기”로써 강조하고 있는 바, 청말에서民国 초기에 이르는 갑오(청일)전쟁 패배, 무술변법, 신해혁명과 5.4 운동을 연결함으로써 지식인 계층, 신문출판, 교육선거, 정치제도와 종교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전통적 중국에서 근대적 중국으로의 질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역사상 이러한 “관건적 시기”가 가지는 의의는 “승선계후(承先啓後)”라는 사자성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이미 여러 학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관건적 시기”는 한 왕조나 국가 내부의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한 왕조나 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지역사의 범주에서 놓고 볼 때에도 역시 일부 중요한 시기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관건적 시기”에서는 흔히 각 국가나 지역의 지위, 역량이나 이익의 “물갈이”가 진행되며 과거의 균형이 타파됨과 아울러 새로운 균형이 형성된다. 따라서 뒤따르는 일정한 역사 기간의 안정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며 보다 큰 지역 범위의 국제관계가 구축된다.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시기는, 몽골의 세계제국이 동아시아에서 점차적으로 해체된 이후 즉 1368년부터 1420년까지 발생한 동아시아의 역사이다<sup>3</sup>. 필자는 이 시기를 동아시아사의 “관건적 시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50여년간 몽골의 세력은 점차 몰락하고 동아시아의 대명 왕조, 조선과 일본(무로마치 막부)은 복잡한 왕래, 절충과 타협의 결과 “기해동정/응영외구” 사건을 계기로 이후 동아시아 역사의 기본 틀을 완성하게 된다. 이른바 조선의 “사대교린”을 중심으로 명나라, 조선, 일본 삼자간의 기본 균형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후 몇 세기 동안, 비록 왜구사건, 임진왜란, 명청교체와 같은 일련의 불안정과 변화 요소가 있었지만 동아시아의 국제적 균형은 이 틀을 기초로 수백 년 동안 존속되어 왔으며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서방으로부터 진입한 군함과 대포에 의하여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 二

이제 14-15세기 이행 기간(1368-1420)의 이 50여년의 역사를 간단히

<sup>2</sup> 張灝 <中國近代思想史的轉型時代>, 張灝《時代的探索》(台北:中央研究院·聯經,2004), p.51.

<sup>3</sup> 혹자는 이미 세계 근대사는 원나라가 몰락하고 명나라가 건립된 1368년부터 서술되어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趙現海 <世界近代史的起点与明代中国的历史分流>, 《中国史研究动态》(北京) 2016年第5期, p.42-43.

살펴보도록 하자.

유라시아 대륙을 종횡무진하던 몽골제국은 14 세기 중엽 이후로 점차 동아시아에서 쇠퇴해져 갔다. 1368 년, 주원장(朱元璋)은 원나라를 뒤엎고 한족이 통치하는 명나라를 건립한다. 1392 년, 이씨가 고려 왕씨를 대체하여 조선을 건국한다. 같은 해,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는 남조의 고카메야마 천황(後龜山天皇)을 강제 퇴위시키고 남북 분열의 국면을 종결한다. 1400 년, 안남의 레(黎)씨가 쩐(陳)씨를 대체한다. 5 년 뒤인 1405 년, 지속적으로 명나라를 위협하던 티무르(帖木兒)가 죽고 나서 왕위 쟁탈전으로 혼란에 빠진 티무르제국은 두 번 다시 동아시아를 넘 볼 수 없게 된다<sup>4</sup>.

우리는 이 시기를 “몽골시대” 이후의 하나의 “관건적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관건적 시기” 동안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는 수많은 관계 조정이 이루어졌다. 명나라 초기의 중국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내부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하여 한편으로는 명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 체계의 회복을 시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십오부정지국(十五不征之國)”을 선포하는<sup>5</sup> 등의 방식으로 타협을 취하기도 하였다. 중점적으로 동북과 서남 지구를 평정하여 변경 지역의 불안정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주변 기타 국가들에 대하여 무마정책을 펼쳤으며 심지어 타타르(鞑靼)와 올랑합(兀良哈)에 대해서도 초무정책을 실시하였다.<sup>6</sup> 이와 동시에 새로 건립된 조선왕조는 명나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대”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본과도 완화의 태도를 취하여 “교린”의 관계를 재건하게 된다. 일본의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명나라와 조선이 연합하여 일본을 대적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원구(元寇)” 이후 고립된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개변하고자 노력하였다. 1374 년과 1380 년 선후로 두 차례의 사신 파견이 거절당한 뒤<sup>7</sup>, 일본은 명나라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고자 1401 년 “일본준삼후도의(日本准三后道義)”의 명의로 상서하여 명나라의 책봉을 받았으며, 다시 “일본국왕” 대 “조선국왕”이라는 대등한 방식으로 이씨조선과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 티무르의 왕위 계승자 역시 1405 년 티무르가 죽은 뒤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명나라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4 영국 학자 John Darwin 역시 그 저서에서 티무르제국의 해체가 세계사에 대한 영향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중문 번역본: 《后帖木儿时代: 全球帝国的兴与衰》(陆伟芳·高英芳译, 大象出版社, 2011).

5 《明史》卷三百二十二《外國三·日本》에 기록하기를 “列不征之國十五, 日本與焉. 自是, 朝貢不至, 而海上之警亦漸息”, p.8344.

6 《明太祖實錄》卷一二四(洪武三十五年十一月壬寅條 참조).

7 田中健夫《中世対外關係史》(東京大学出版会, 1975). 특히 제1 장 참조

이로써 상호 타협을 거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다.

### 三

그러나 15세기 초엽에 이르러 명태조,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잇달아 죽으면서 그들의 후계자들은 동아시아 기존 질서의 상대적 균형을 깨뜨리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다. 명의 영락제는 선후로 다섯 차례나 몽골의 잔여세력을 토벌하였고, 남으로는 안남에 대한 “개토귀류(改土歸流)” 정책을 실시함으로 명나라에 속하는 교지(交趾)군을 설립하고자 하였다<sup>8</sup>. 일본의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는 더 이상 명나라의 종주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sup>9</sup> 오만한 자세를 취함과 더불어 “일본쇼군” 대 “조선국왕”의 지위 설정으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조선을 능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국왕은 1419년 돌연 일본의 대마도를 정벌하는 강경책으로 맞서 일본을 놀라게 하였다. 명나라 역시 홍무 연간의 보수정책을 바꾸어 같은 해에 망해과(望海峽) 전역을 통하여 왜구의 침략세력을 숙청함으로써 조선의 일본에 대한 강경책을 지지하였다.

이 관건적인 시점에서 일본은 하카타(博多) 묘라쿠지(妙樂寺) 절의 승려 무가이 료계(無涯亮倪)를 조선에 파견하게 된다. 마침 같은 해에 강경파 임금이었던 조선의 태종이 승하하고 애초부터 왜구 문제에 대한 소위 “근본적 해결”에 찬성하지 않았던 세종이 집정하게 됨으로써 양국 간의 긴장 상태는 비로소 완화되게 된다.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국제 형세 하에서 이듬해 1420년 조선은 송희경(宋希璟)을 “회례사”로 일본에 파견하게 되며 또한 일본에 대장경을 선물함으로써 이후 수백 년 간의 조-일 외교교류의 역사를 열어가게 된다. 이에 이르러 조선의 “사대교린”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sup>10</sup>. 비록 이후 “임진왜란”과

<sup>8</sup> 영락황제의 이러한 진취적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은 안남 정복과 몽골 원정 이외에도 (1) 일곱 차례 정화(鄭和)를 파견하여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와 인도양 항로를 개척하게 한 것, (2) 환관을 아무다리야 강(阿姆河) 유역에 파견한 것, (3) 누르간도사(奴兒干都司)를 설치한 것, (4) 후현(侯顯)과 이달(李達)을 사신으로 서역과 티벳에 파견한 것 등에서도 표현된다.

<sup>9</sup> 영락 9년(1411), 아시카가 요시모치는 삼보태감 왕진(王進)을 접견하기를 거절하였으며 왕진은 결국 일본 부녀자가 남몰래 도와 쥐서야 효고(兵庫)를 통하여 명으로 돌아오게 된다; 영락 16년(1418) 3월, 요시모치는 또 한번 명나라 행인 여연(呂淵)의 접견을 거절하고 그더러 교토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였다. 汪向荣《明史日本傳箋證》(成都: 巴蜀書社, 1987), p.44-46 참조.

<sup>10</sup> 물론 일본의 국내형세 역시 이의 중요한 원인이다. “오닌(應仁)의 난” 이후로 일본은 장장 한 세기 동안의 내란 상태에 빠지게 되어 국제정세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이 기간 다만 야마구치(山口)의 오우치(大內) 일가가 “일본국왕”의 명의로 은광 개발과 해외무역의 권리를 장악하였을 뿐이다. 하여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각국의 관계는 대체로 안정되고 피차 냉담한 상태였다고 보아지며

같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이 기본질서는 근대 서방열강 침입으로 동아시아의 국면이 근본적으로 타파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다시 말하여 동아시아의 중국, 조선, 일본, 몽골, 유구, 안남 등 국가 간의 관계는 “포스트 몽골시대”라는 기본 틀 안에서 지속되었던 것이다.

#### 四

혼다 미노부(本田實信),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와 같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몽골제국 시대를 세계사의 발단으로 보아왔다<sup>11</sup>. 그러나 우리는 유라시아를 가로지른 이 세계사가 그 첫 페이지를 넘기기 바쁘게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금 몇 개의 독립적인 통치공간으로 분열되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몽골제국의 통치와 위협에서 벗어난 동아시아 각국은 “몽골시대” 이후 여러모로 흥미 있는 변화를 통하여 하나의 독특한 역사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동아시아 각국은 자신만의 정치와 문화를 재구축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먼저 중국의 경우를 보자. 명나라가 건립된 후, 원나라를 대체한 대명 왕조의 합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명나라 조정은 대규모적이고도 철저한 “몽골잔재 제거” 정책을 실시한다. 장가(張佳)가 <신천하지화>에서 지적하듯이, 명초에 진행된 한족 문화전통 재건 운동은 단순한 “호복, 호어, 호성을 금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부동한 계층 사람들의 복식 제도에 대한 규정, 오랑캐(몽골)의 풍속이 섞인 경조사 제도에 대한 관리, 사회 등급제도에 대한 강화, 각종 예의풍습에 대한 재규범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명초 국가에서는 일련의 엄격한 조치와 정돈을 통하여 한족 전통생활 규범을 회복하고 사농공상의 사회를 재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상하유서의 유가 정치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문화, 풍속, 문헌 심지어 혈통 상에서 몽골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과거시험과 유학을 제창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와 문화를 다시 “한족중국”의 전통적 궤도로 되돌리고자 하였다<sup>12</sup>.

---

가끔 왜구가 연해 지역에서 소란과 약탈을 감행함으로써 부분적 충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나서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sup>11</sup> 本田實信《モンゴル時代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91); 岡田英弘《世界史的誕生: 蒙古的發展與傳統》(陳心慧譯, 台北: 廣場出版社, 2013); 杉山正明《忽必烈的挑戰: 蒙古帝國與世界歷史的大轉向》(周俊宇譯,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杉山正明《蒙古帝國的興亡: 軍事擴張的時代, 世界經營的時代》(孫越譯,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sup>12</sup> 張佳《新天下之化: 明初禮俗改革研究》(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4)

다음으로 일본을 보도록 하자. 나이토 고난이 <일본문화의 독립>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하다시피, “몽고내습”이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문화적 대외독립 의식의 발현은 이러한(몽골 대군의 군선이 태풍에 풍비박산이 나고 대패하게 된) 사건들의 발생과 아주 큰 연관이 있다 (중략) 일본은 여태껏 중국을 일본문화의 스승으로 숭상하였으나 이 문화적 스승이 오랑캐의 자손 몽골에 의해 멸망하고 만 것이다 (중략)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일본은 신국(神國)”이라는 관념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가네요시 친왕(懷良親王)이 명태조의 위협에 강경한 맞대응을 보인 이후로는 중국의 앞에서 더욱 기를 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나이토는 “일본문화가 근본적인 독립을 실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다시 조선을 보자. 북원과 명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고려왕조는 14세기 말에 이르러 이씨 왕조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신흥 왕조로서의 조선은 중국과의 왕래에서 태도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명나라의 종주국 지위를 인정하고 명나라의 책봉을 받아들이면서 “언사를 낮추고 삼가 섬기기”(且卑辭謹事之)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은 문화적으로 명나라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통하여 유가사상 특히는 성리학적 정치이념과 도덕윤리를 실행하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조선왕조는 명나라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정치와 문화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선의 국제지위, 정치제도와 사회구조로 말미암아 그들의 유가 관념, 윤리제도 및 도덕적 요구는 중국보다 더욱 엄격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누가 “중화”의 정통인가 하는 의식의 자각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sup>14</sup>.

## 五

<sup>13</sup> 內藤湖南 <日本文化的獨立>(1922년의 강연), 《日本历史与日本文化》(刘克申译, 北京: 商务印书馆, 2012), p117, 122 참조)에 수록.

<sup>14</sup>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황과 같은 경우, 엄격하게 유가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중화”가 “중화”될 수 있는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문명은 성현과 경전이 나온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조선 역시 문명의 정통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후세의 이른바 조선의 “소중화” 사상의 기초가 된다. 퇴계는 《성왕황화집서(成王皇華集序)》에서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는 하늘이 구획한 영토가 멀리 바다 바깥에 있으나 기자가 책봉된 곳이요 공자가 살고자 했던 고장이라 예의와 문헌으로 칭한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고 한다 (臣竊惟我東國, 天畫壤地, 邈在海表, 然而箕子之所受封, 孔聖之所欲居, 禮義文獻之稱, 其來尙矣) 라고 기록하고 있다. 《朝鮮文集叢刊》第三冊 卷五十九, p.261

1420 년, 영락제는 남경에서 북경으로의 천도를 진행한다. 이 시기 몽골의 세력은 이미 몰락하여 갔고 동아시아에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sup>15</sup>. 같은 해, 조선의 사신 송희경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조-일 관계는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몽골시대” 이후 동아시아사 혹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기본적 특징은 무엇인가? 필자의 관점은 유럽의 군함과 대포가 동아시아의 문호를 열어젖히고 “충격”을 가하기 이전까지는: (1) 환동중국해 각국은 조선의 “사대교린”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기본 균형을 이룬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질서는 14 세기 중엽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15 세기 20 년대에 기본 틀을 완성하였으며 19 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400 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2) 몽골의 침입과 쇠퇴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각국에서는 문화적 “자아중심주의”가 굳기되었다. 다시 말하면 각국은 과거의 두리몽실한 “동질감”으로부터 각자의 정치와 문화적 독립의식의 각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정치적 승인, 문화적 정체성과 경제적 이용의 차이로 분화되어갔다. 특히 17 세기 중엽 이후 중국의 명청교체와 더불어 조선과 일본이 중국에서 이미 “화이변질”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인정하면서부터 이러한 정체성 괴리 상황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3)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형성된 새로운 무역권에서 국가 차원의 조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었으며 대부분 무역은 상인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물질적 유통이었다. 이 4 세기 동안, 환동중국해 해역의 국제무대에서 각국은 경제적 연계로 이어져있었고 문화적 경쟁을 시작하였으며 정치적 각축을 벌여나갔다. 그 과정에서 간혹 치열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번번이 상호 타협으로 해결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국면은 19 세기 중엽 서방 세력이 군함과 대포를 앞세워 동아시아에 진입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2017 년 4 월 상하이에서

(번역: 박 현)

---

<sup>15</sup> 영락 연간에 명나라는 북방의 몽골에 대해 진공 태세를 취하였다. 영락제는 수 차례의 북벌을 진행하였으며 몽골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타타르(韃靼)와 와라(瓦剌) 두 부족을 일시적으로 평정하게 되어 와라의 삼왕, 아로대(阿魯臺)를 작위에 책봉하였으며, 올랑합은 삼위(三衛)를 건립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명나라에 패하게 되었다. 이로써 명나라의 북부 변방 지역은 일시적인 안정을 맞이하게 되었다.